

- 세종형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

제3차 간담회 결과 보고

['24. 4. 16.(화), 의회운영전문위원 고경환(7413)]

□ 간담회 개요

○ (시간/장소) '24.5.7.(화) 16:00~22:20 / 의회대회의실, 아산시자율방법연합회

○ (참 석 자) 이현정 대표의원 외 7명 ※불참 김동빈 의원, 홍성표 경감

연구모임 회원: 이현정(의원), 김동빈(의원), 김충식(의원), 유인호(의원), 곽영길(충남도립대학교)
김흥주(대전세종연구원), 김영식(서원대학교), 홍성표(세종경찰청),
도이현(세종경찰청 인권위원회), 임재곤(세종시자율방법연합회)

○ (내 용)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대한지방자치학회) 청취 및 현장방문*

* 충남 아산시 자율방법연합대 사무국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 등

□ 주요 내용

○ (이현정) 자율방법대법 개정 이후 세종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 자율방법대 등의 새로운 관계 설정 및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제시와 함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 마련에 연구용역 집중 필요

○ (유인호) 본 연구는 현실적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넓게 접근하되, 자율 방법 또는 시민경찰을 활용한 커뮤니티형으로 실행 가능한 모델 도출 필요

○ (김영식) 학계, 의회, 경찰 등 관련 전문가 대상 설문 설계시 지역 경찰과 자율방법대 간 협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제고방안 마련을 당부

○ (김충식) 연구의 핵심인 설문조사는 현장중심으로 하고, 계량화된 치안 성과와 통계 등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성과물이 제출되기를 기대.

○ (아산시 자율방법연합대 방문) ① 자율방법대법 개정 이후 지역 치안활동 환경 및 대원들의 인식변화에 대해 논의 ② 아산시 연합대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내부운영 제도 및 우수사례 공유

□ 향후 계획

○ 세종시자율방법연합회 주관 안전캠페인 참여(5.30. / 나성동 일원, 7개 단체 참여)

□ 사진대지





세종시의회
10년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보도자료

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요청: 2024년 5월 8일(수)부터				사진(ㅇ)
제 공 부 서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 정 옥	☎ (044) 300-7413
		주 무 관	고 경 환	

세종시의회,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연구용역 착수

-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 개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5월 7일 오후 4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현정)’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용역’의 착수 보고를 청취했다.

연구용역은 지역맞춤형 자율방범대 운영 방안 및 치안 민관협력 모델과 조례 개정안 제시 등을 위해 세종시의회 주도로 6개월간 진행되며, 용역수행자는 대한지방자치학회(학회장 이승철)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소관부서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세종경찰청과 새로운 민관협력 치안거버넌스 모델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 중심의 실증분석에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견도 모았다.

또한, 착수 보고에 이어 충남 아산시자율방범연합대를 방문해 자율방범대법 개정 이후 지역 치안활동 환경 및 대원들의 의식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투명하고 체계적인 내부 운영을 위한 간사제도 도입 등 우수 사례 또한 공유했다.

이현정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획기적인 치안 성과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의된 사안들을 향후 세종시 자율방범대 여건 개선과 시청·경찰·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 구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는 연구모임 회원들이 논의한 내용과 연구진들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오는 9월경 이뤄질 예정이다.